

SEOUL ARTIST
PARK SEYOON



나의 하루를 다시 만들어 세우기까지

**BUILDING MY DAY
AGAIN**

제목 : 나의 하루를 다시 만들어 세우기까지, 박세윤

에디터 : 서예람

사진제공 © 박세윤

TITLE : Building My Day Again, Park Seyoon

EDITOR : Seo Yeram

PHOTOS © Park Seyoon



서래마을 입구에 위치한 갤러리마크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주 동안 ‘앱스트랙션-크리에이션’이라는 제목의 박세윤, 조재영 2인의 조각품 전시가 열린다. 그중 박세윤 작가는 이번에 그의 작업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선보인다.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는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렘 콜하스가 이끄는 OMA를 비롯한 존경받는 건축가 사무실들을 거치며, 어찌 보면 남부럽지 않게 했다.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6년 전, 그리고 지금의 박세윤은 전업 작가가 되었다. 설치를 위해 브루클린에서 날아와 2주간의 격리를 막 마친 그를 만났다. 전시 설치를 시작하던 시점이라 작품들은 아직 박스 속에 꼼꼼 포장되어 있어 만날 수 없었지만, 그 대신 박세윤은 이야기보따리를 먼저 풀어주었다. 막힘없이, 솔직하게.

Gallery Mark is showing a sculpture exhibit of two artists – Park Se Yoon and Cho Jai Young – for five weeks starting November 26th to December 31st in Seorae Village, titled “Abstraction-Creation.” This is Park’s first exhibit in Korea. He has an interesting architecture background that dates back twenty years to university. He wasn’t just any architect: he went through eminent studios such as OMA helmed by Rem Koolhaas and led an exemplary career. He started making things six years ago. Now, Park is a full-time artist. He flew in from Brooklyn, New York, to install his work and we met up just as he was coming out of his two-week quarantine. He was only beginning the installation process, so his works were still tightly packaged, but instead he let us into his life by telling us his story without filter or inhibition.



●. 격리를 마친 것을 축하한다. 어땠나? 격리가 끝나고 는 제일 먼저 무얼 했나?

▲ : 2주 동안의 격리 생활을 겪어 보니,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그래서 격리가 끝난 날에는 서래마을 주변을 세 시간이나 걸었다. 걷는 행복감을 만끽했다. 걸을 때 보이고 경험하는 건 확실히 다르다.

●.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 : ‘Sculpture Diary’라는 작업으로, 이전에 만들었던 오브제 170개를 선반 위에 올려 설치하는 작업이다.

●. 특별히 그 작품을 선보이는 이유가 있는가?

▲ : 사실 판매를 생각했을 때는 가장 힘든 작품이다. 대형 미술관이 아닌 이상 그 큰 작품 전체를 일반 컬렉터가 구매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품 전체가 아니라 오브제 각각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근래 만든 것 중에 내가 보기에 가장 강력하고, 개인적인 작품이다. 선반에 올려 두면 오브제 하나하나가 연대기와 서사를 구성할 정도로 잘 표현됐다. 사실 이런 방식이 맞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 2년이 넘게 걸리니 말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었을 때 가장 솔직하고, 사람들에게도 잘 읽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이 작품이 제일 좋다. 이유를 잘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마 가장 솔직하게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닐까.

●. 사적인 작업인 것 같다. 스스로에게 작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 : 마치 매일 일기를 쓰듯이 조각을 만들어서 기록한다.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은 나 자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10월에 처음 조각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게 시작했다. 뭔가 다른 걸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그날의 나 자신을 작은 오브제로 만들었다. 대단한 포부로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한다.

●. 개별 작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 먼저 느낌과 생각을 날짜와 함께 적어둔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하는데, 손으로도 하지만 주로 컴퓨터로 한다. 마치 건축할 때처럼. 여러 차례 모델링을 해보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본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찾아간다.

●. Congratulations on making it through quarantine. How does it feel? What’s the first thing you did?

▲ : After two weeks of quarantine I realized how precious little things were. I didn’t know what a blessing it was to move. On the day quarantine ended I walked around Seorae Village for three hours. I reveled in walking. What you see and feel on a walk are totally different.

●. What kind of pieces are you showing in this exhibit?

▲ : The project is called “Sculpture Diary.” It’s an installation piece of a hundred and seventy objects set on shelves.

●. Is there a reason you chose this project?

▲ : This is actually the hardest piece to sell. Unless it’s a large museum, it’s hard for an average collector to purchase the entire piece. This is why I’m allowing each piece to be sold piecemeal. In my opinion, these are the most powerful and personal pieces I’ve made recently. When placed on the shelf, each object was able to express a chronology and narrative. Such takes over two years to make. I’m not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to go about it, or if I will be able to continue to work like this. But this is the most honest way and well-received by the public. I don’t know about other people’s opinions, but this is my favorite piece. It’s hard to explain, but I think it’s because I made it most sincerely.

●. The work seems personal. What does work mean to you?

▲ : I record my days through sculpture piece by piece like a journal. You can say everything I make is like me. That’s how I started back in October 2014 when I first started sculpting. I wanted to cultivate inner peace by making myself into a small object. I never started with any ambition; until this day I work with my personal stories.

●. What’s the individual process like?

▲ : First I write down notable feelings and thoughts with the date. Then I sketch something based on it. I do it by hand sometimes but mostly by computer. I try out modeling a few times and make a prototype in the easiest way possible. Throughout this process I choose and find what I intended to express and continue to refine. This exhibit called for more work. In usual, the hardest part of the process that takes up the most time and effort is making the



이번 전시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공을 들였다. 원래 작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관객들은 이후 거기에 메탈이나 레진을 부어 만드는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나게 된다. 완벽하게 출력되어도 매만져지는 과정에서 상처 입고 마모되는 프로토타입이 마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업을 조금 달리했다. 프로토타입을 파이널 프로덕트로서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토타입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이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건축가로서의 오랜 경력이 작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 : 아마 글 쓰는 사람은 글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개인적인 구조물을 만들 때 내가 쌓아온 건축적인 지식이 활용된다. 재료도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사용한다. 3D 프린팅하고, 레진을 손으로 캐스팅하고, 메탈이나 나무도 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품을 구축할 때, 다시 말해 그 형태를 만들 때 나도 모르게 건축적인 배경이 작동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를 만들어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장되게 만들기도 한다. 철저히 계산해서, 잘 버틸 수 있도록.

●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의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다. 스케치와 모델링을 할 때 기준이 있는가?

▲ : 나는 빛과 어둠이라는 범주 안에서 구상한다. 나라는 사람도, 우리 모든 삶도 빛과 어둠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이 건축에서는 실내공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건물이 아니라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게 되니까 이 요소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의 몇 가지 모양들을 활용해 70%의 빛과 30%의 어둠이 있도록 작품을 구상한다. 왜 저 비율이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다. 그냥 그게 마음에 들었고, 적어도 저 정도 비율이어야 사람도 살 수 있는 것 같다.

빛과 어둠을 잘 표현하는 소재가 나무라는 생각이 들어 나무 형태로 작업을 하기도 했다. 한 번에 만들거나 깎는 게 아닌,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 조립해서 만드는 식이다. 나무는 줄기와 잎, 꽃은 빛을 향해 자라지만 뿌리는 어둠을 향한다. 빛과 어둠이 모두 있어야 나무는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나무를 아주 조형적이고 대칭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완벽해 보이니 이 작품이 가진 이

prototype. Paradoxically, viewers only see the final product that's made by pouring in metal or resin into it. Even if the prototype comes out perfect, it gets hurt or destroyed during touch-up, which made them feel like people to me. So I changed up the process. I am going to exhibit the prototypes as final products. It was difficult to repeatedly produce prototypes, but I felt like this method was more fitting.

● How does your experience as an architect influence your work?

▲ : It is my understanding that writers express and record their stories in words and music folks to the same with music. But if you're an architect you can't go ahead and build whatever's in your heart. That's why I started making things. My knowledge in architecture influences the process of making these personal structures. I often use building tasks and materials: 3D-printing and casting resin by hand; also metal and wood. But more than anything it's when I build the work and when I make the form that my architectural background kicks in unbeknownst to me. I don't know how others do it, but it's not easy to build a structure. That's why I exaggerate at times so that the methodical calculations can withstand anything.

● The resulting forms are very beautiful. Do you work with any standards when you sketch?

▲ : I think in terms of light and darkness. Our lives are filled with light and darkness. This is an important aspect of internal space in architecture. Since I was making useless things instead, I could bring this aspect outward. I use a couple of basic shapes and formulate the piece so that it consists of 70% of light and 30% of darkness. If you ask me why this proportion, I couldn't answer you. I feel that's the kind of proportion that makes it livable for people.

One day an idea came up in mind that tree expresses the theme of light and darkness well. From then, I made some tree-shaped pieces. It's not done in one go or carved; but small units are made then assembled. Tree branches, leaves, and flowers grow toward the light but roots head towards darkness. A tree can survive only when it has both light and dark. At first I wanted to make this tree very structural and symmetrically beautiful. But when the tree looked too perfect, people didn't seem to believe the story this piece was telling, and I also felt I was telling a lie. Then I made an unfinished tree that tilts to one side, and that felt closer to me. Architecture is in the





야기를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고, 나도 스스로 거짓 말하는 기분이 들었다. 한쪽으로 치우친 미완성의 나무를 만들어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까운 것 같았다. 아무래도 건축은 디자인 영역이라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 남아있던 것 같다. 내 자신이 만족하려면, 또 남들에게 보여주려면 그래야만 한다고 여겼다. 이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솔직해야 사람들과 통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깨어진 부분이다.

● 뉴욕 기반으로 활동하는데, 서울에서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 갤러리 디렉터가 먼저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7년에 연락을 주었다. 외국에서 작품을 옮겨야 하니 갤러리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인데, 감사할 따름이다.

● 서울에 오랜만에 왔는데, 감회가 어떤가?

▲ : 유학을 간 뒤 꽤 오래 한국을 들어오지 않다가 2018년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에 왔다. 서울 전체가 너무 많이 변해서 깜짝 놀랐다. 가장 친숙했던 신촌 근처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 서울에 대한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경제 발전을 바라보며 급하게 달려오다가 이제 조금씩 디테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바라기로는, 조금 더 걸기 좋은 도시가 되면 좋겠다.

● 서울에서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는가?

▲ : 의외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좋았다. 건축하는 주변 사람들, 선배들은 다들 욕한다. (웃음) 친구와 함께 그 옆의 두타 건물에 갔었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 보였다. 비록 한국과 서울, 동대문이라는 맥락을 다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는 건물이지만, 어떤 퀄리티는 맥락도 뛰어넘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00년 뒤에 저곳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금은 모른다.

● 마지막 질문이다. 시각을 제외하고 어떤 감각이 가장 소중한가?

▲ :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답하기가 어렵다. 포기하려면 미각을 쉽게 포기할 텐데. 아마 후각이나 촉각일 것 같다. 냄새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니 머리는 후각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자꾸 촉각이다. 촉각이라는 말이 워낙 예쁘기도 하고. 촉각은 감각보단 따뜻함에 가까운 것 같다.

realm of design, so I had thought the results have to be pleasant to look at, and there were residues of that tendency in my work. I believed that was how it was supposed to satisfy myself with it and show it to others. I don't think this is the case anymore. You have to be true to yourself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others. I realized this deeply preparing for this exhibition.

● You are a New York-based author. What made you decide to exhibit in Seoul?

▲ : The director of the gallery reached out to me through Instagram in 2017. It is not an easy decision as it costs the gallery a lot of money to move the pieces, so I am grateful to them.

● How is it being back in Seoul for a long time?

▲ : After I left to study abroad I hadn't been back in a while until I visited Seoul 2018 for the first time in a very long time. It blew me away how much everything had changed. Especially, Sinchon area that I was used to. My opinion on Seoul has changed a lot as well. We've been running at breakneck speed since the development era and we finally have time to pay attention to detail. It's a transitional phase. In the future, I hope it can become more pedestrian-friendly.

● What's a place in Seoul that left an impression?

▲ : I really liked Dongdaemun Design Plaza, to be honest. People in architecture all hate it. I went to Doota Mall next to it with a friend and the people across the street in DDP looked like they were having fun. It's criticized for ignoring all the surrounding context like Dongdaemun, Seoul, and Korea, but certain qualities are able to skip over any kind of context. We don't know what people will say about it a hundred years from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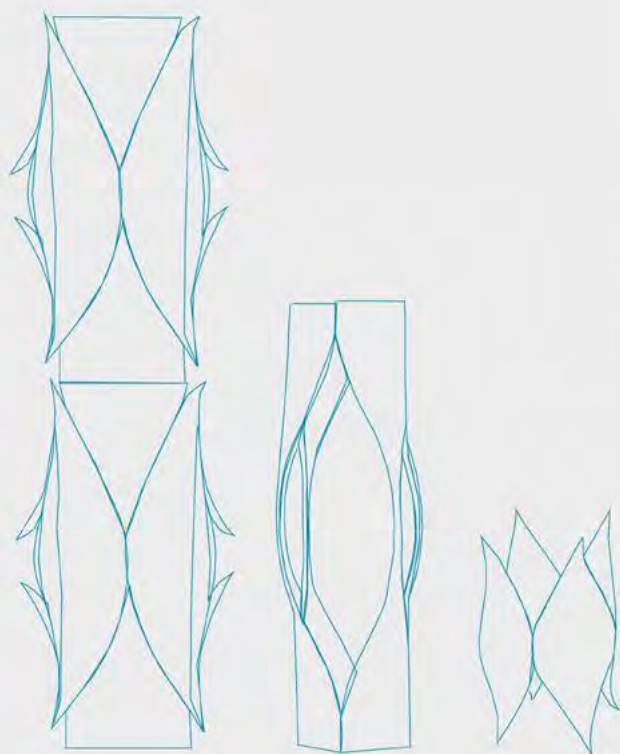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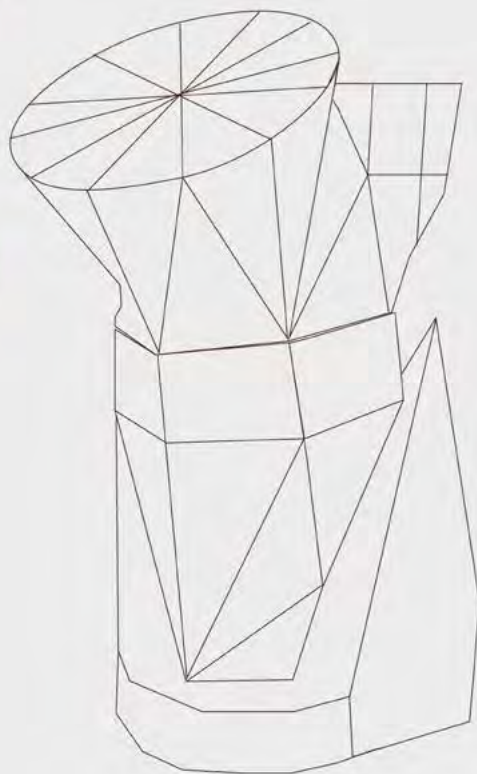
● Last and perhaps least, here is a silly question: what sense is most important to you other than sight?

▲ :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I've never thought of it before. I guess it would be the sense of smell or tactile sense. They say scents remain in your memory the longest so my mind says to choose the sense of smell, but my heart says to keep tactility. I think the Korean word for tactile sense, saying *chokgak*, is pretty. It feels closer to warmth than a sense.

Abstraction-Creation

2020. 11. 26 - 2021. 1. 9

조재영 Cho Jaiyoung
박세운 Park Seyoon



MARK

생, Q&A , 계

- 초능력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What superpower do you want to gain?

▲ 위선자들을 슈아내어 저 멀리 명왕성으로 격리시키는 초능력
The power to pick out all the hypocrites and send them faraway to the Pluto
- 뭐가 되든, 이걸 정말 소장하고 싶다?
What are you dying to own?

▲ 베르니니의 모든 조각품 + 에곤 쉴레의 모든 그림
All pieces of Gian Lorenzo Bernini sculptures and Egon Schiele paintings
- 내게서 이것만은 빼어가지 마라?
What can never ever be taken from you?

▲ 존엄성 Human dignity
- 문자 vs 전화? Text or Call?

▲ 이메일 Email
-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 한 줄?
Favorite lyrics?

▲ .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 올해가 딱 하루만 더 늘어난다면?
If you got a single day more for this year?

▲ . 그날이 꼭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이길!!!
Hope that would be the day COVID-19 terminates!
- 최근 받은 선물 중 가장 고마웠던 선물은?
The most precious present you got recently?

▲ . 여행 가방 속에 몰래 숨겨져 있던 여자 친구의 손편지
Girlfriend's handwritten letter I found in my luggage
- 일주일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If you had a week of free time, what would you do?

▲ . 걸겠다 Walking